

대림 제 1 주일

기도서 209 면

제 1 독서 : 예 레 33, 14-16
제 2 독서 : 1 데살 3, 12-4, 2
복 음 : 루가 21, 25-28. 34-36

숲 정 이

발행처 :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 홍보국
인쇄 : 판리국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0042

강론



성 막스밀리안 꼰베 신부

박 병 준 신부

성 막스밀리안 꼰베 신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대리 죽음을 하였다.

수감 중이었던 한 사람이 탈출을 하자 폴란드 사람 대표 열 사람을 뽑아 죽이게 되었다. 그때 한 사람은 외쳤다. 나는 죽어서는 안된다고 나의 고향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딸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죽어서는 안된다고, 그때 꼰베 신부는 수용소 소장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대리 죽음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소장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대의 직업이 수용소에 오기 전에 무엇이었던가?" "예, 나는 가톨릭의 신부였습니다" 하였다. 허락이 떨어지고 꼰베 신부와 그 일행은 아사감방인 지하실을 향하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 생겼다. 다른 이들은 아사감방으로 갈 때 독일군에게 갖은 욕설을 하였지만 이들은 성가를 대신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며 걸어가고 있었다. 가끔 아사감방을 지키는 독일군이 문을 열고 숫자를 셀 때마다 열을 불 겨를도 없이 기도와 성가에 전념하고 있었다. 열흘이 지나고 2주가 지났다. 감방의 문을 열어보자 아홉 명은 숨겨 있었고 꼰베 신부는 죽기 직전이었다. 무자비한 간수는 득침으로 찢터 꼰베 신부를 주님의 품으로 가게 하였다.

성녀 소화 메레사나 성녀 마리아 고레머는 교회법에 죽은지 50년 후에야 성인 성녀품에 오르게 되어 있는데도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 예외로 50년이 못되었는데도 성녀품에 오르셨다.

대리 죽음을 한 성 막스밀리안 꼰베 신부도 50년이 못되는 교회법의 예를 또 한 번 깨뜨린 것이다.

자기의 벗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은 사랑을 다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리라.

별이 땅에 떨어지든, 해가 그 빛을 잃고, 지진이 일어나 인류의 물질문명이 파괴되든, 전쟁이 시작되어 핵이 폭발하든지 관계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키워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메살렌 2, 12~13).

위타적인 우리의 삶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우리 교우들의 생활목표는 위타적인 생활일 것이다. 이것이 없는 삶이란 우리 교우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전동 전주교회 보좌신부)



마음의 길을 닦자

세례자 요한은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예고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의 용서를 받으라"고 선포했다. 이는 이사가 예언서에 있는 말씀대로였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모든 골짜기는 메우고/높은 산과 작은 뫼는 깎아내려/굽은 길이 곧아지며/험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온 인류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대림 시기이다. 우리 마음의 길을 깨끗이 갈고 닦아야 하는 시기이다.

지금 전주 시내에는 아직도 성성한 길을 포장하느라고 바쁘다. 페인트칠도 서두르고, 큰길 연변에는 예쁜 꽃밭도 가꾸고 있다. 새마을 지도자 전국대회에 대한 대비라고 한다. 아마 높은 분이 오는 모양이다.

환경을 깨끗이 꾸미는 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살림에, 어떤 길을 포장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일인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10분이 멀다 하고 시내버스가 왕래하는 길의 포장에 망가져서 승객들이 이리저리 곤두박질을 쳐야 하는 길을 제쳐 놓고, 아직은 멀쩡한 길을 단장하는데는 남독이 가지 않는다. 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을 연상하면 페인트칠하기가 먼저 떠오른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것을 보면 70년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어 마음이 안 좋다.

교구보 숲정이가 탄생된지 만 10년, 그간 무슨 역할을 해왔는지를 반성하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도 재검정해 보아야 하겠다. 해마다 대림시기를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며 살았는지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만을 가꾸었는지, 정말로 마음의 길을 곧고 바르게 가꾸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우리 마음에 굽어져 있는 험한 골짜기를 바로잡자.

숲 정 이 산책



「참 부럽다!」 전주지구

□ 전례 해설

대림 시기

대림 시기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열망하며 기다리던 구세주의 내림을 회상하는 시기이다. 성탄전 4주간이 대림 시기에 해당되는 기간이다. 전례적으로 두가지 내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탄생과 세말의 심판을 위한 재림을 뜻한다.

대림 시기의 첫 주일은 교회의 달력 즉 전례주년의 시작이며 올해는 미사통상문 C해의 것을 읽어야 한다. 사제의 제의색은 연중시기에 입던 녹색에서 죄에 대한 뉘우침과 속죄를 나타내는 자색으로 바뀌게 된다.

대림관을 만드는 관습이 있는데 대림관을 둥근 화관을 엮듯이 푸른 소나무나 사철나무로 둥글게 엮어 만든 다음 네 자루의 굵은 초를 그 둥근 화관 위에 꽂아 만든다. 사철나무는 우리에게 내려질 심심한 하느님의 새로운 생명을 뜻하고, 4개의 초는 구약의 4천년을 의미한다. 주일마다 하나씩 불을 켜감으로써 빛이 다가오고 있음을 상징한다.

대림 시기 전례에는 특별히 등장하는 세인물이 있다. 이사야 예언자, 세례자 요한, 구세주의 어머니 마리아이다. 하느님께서 구원하실 이를 보내시리라는 굳은 신앙에서 나온 이사야의 말씀,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세례자 요한의 말씀, 메시아를 맞이하는 회례에 넘친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파트'에서 대림 시기 전례의 주제가 고대(苦待)요, 경고(警告)요, 희망(希望)이요, 기쁨(喜悅)임을 알 수 있다.

대림 시기는 모든 의미의 예수의 오심을 다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일단 완전히 세상에 오신 주님의 강생을, 또한 우리 인간의 반려로써 지금 이 자리에 오시는 주님의 현존을, 나아가 세상 마칠 때 영광중에 자신을 나타내려 오실 주님의 재림을 뜻한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활력을 불려 일으킨다. 이 시기는 교회력에서 주님의 공현으로 연결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일생과 나아가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영원한 영광과 보상을 교회안에서 미리 맛보도록 당신의 신비적 안에 결합시켜 주며, 모든 성인의 통공과 그의 영광 안에 간택되어 머물도록 한다. 따라서, 교회는 이때 모든 신자들을 끌어들이 최후의 승리자로 종말에 영광스럽게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들의 영성적 준비를 시킨다. 우리는 우리의 위안이며 기쁨으로 오실 재림을 겸손되이 희망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묵시 22, 20)

□ 신심단체 ㉔

산이와 죽은이의 구원을 위하여

-애령회 활동

죽은 이를 돕는 교회의 봉사는 초대 교회 때부터 행해져 온 뿌리 깊은 예절이다. 종교가 인간의 관혼상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인간 삶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연령회라고 알고 있는 전주 교구의 애령회는 오직 죽은 이들을 위한 활동뿐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불우한 형제들이나, 병자, 유족을 함께 돌보는 애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애령회의 활동은 그리스도인 모두의 기본적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다 애령회의 회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각 본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령회 회원들은 그리스도 신자로서 보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분들이며 매달 정기 모임을 갖고 있다. 회원들의 활동은 특히 장례 예절을 통해 그 지역에서 많은 비신자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과 거리가 먼 것처럼 느끼며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지내고 있고, 특히 현대인은 스스로의 한계를 감각으로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고, 실험과 측정이 가능한 세계로 국한시켜 영원과의 관계를 차단하였기에 더욱 그렇다. 또한 오늘 종교에 귀의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실리 추구(하느님께 빌어서 안락한 삶의 쾌락을 추구하는)나 실적 위주(활동보고 하기 위한 신심활동)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오늘의 현실이 인간을 영원과 단절시키기에 산이와 죽은 이를 연결시키는 확고하고 소박한 신앙을 가진 애령회 회원의 활동이 모든 이들의 마음에 내세에 대한 인간의 희망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애령회 회원은 이와 같은 신심을 실천하기 위하여 서로 깊이 사랑하고 회생과 보속과 기도의 생활을 하며 청빈한 생활을 한다.

애령회는 세상과 연옥과 천당에 있는 성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신비롭게 서로 결합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결합함으로써 서로 공을 통하여 마치 살아있는 몸의 지체가 머리와 서로 결합하여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도구로서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봉사하는 단체이다.

□ 금주의 성서

깨어 기도하여라!

“홍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 날이 갑자기 닥쳐 올지도 모른다. 조심하여라. 그 날이 온 땅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덮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루가 22, 34-36)

□ 가을 관광

안내 상담

전 일 관광

전화 6666~8

제주도·설악산·한려수도

금·은·보석·시계는

금 보 장

장(방저거) 채(마리아)

전주 남문옆

(대지목욕탕 입구)

전화 6-4989(사구팔구)

□ 마출·대여

웨딩드레스·약혼복·연주복·파티복·페백의상·부케 및 꽃다발·신부화장·아기드레스 전화 6951

신부의 집 정인기(논지노)

관	신부의집	우체국
달	동서관통도로	
로	서 울	신탁은행



□ 12월 금요 성경 강좌 안내

1. 12월의 강의 내용 : 사도행전
2. 시 간 : 12월 3일(금) 저녁 7시30분 3. 회 비 : 1,000원
4. 접 수 : 가톨릭 센터 사무실(전화 ㉠ 0041, ㉡ 0042)

□ 제6차 추수감사 및 농민대회 성황리에 마침

가톨릭 농민회 전북연합회는 지난 22일(월) 오전 11시부터 전주 시내 덕진 본당에서 추수감사 및 농민대회를 주최하였다. 제1부는 우람한 농악의 장단 속에 피땀흘려 추수한 각 지방 농산물을 하느님 대전에 바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농촌사회를 건설하려는 소망을 기원하는 미사가 박 정일 주교님과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봉헌되었다. 제2부는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주장을 밝히고 농민문제 해결을 결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 내용은 외국 농축산물 도입을 즉각 중지할 것과 소작농을 일소하여 농민이 토지를 소유토록 배려하며, 농협, 농지개발조합 등 농민관계 조합의 임시조치법을 즉각 철폐하고 관계법규를 개정하도록 요망하였다. 또한 외국 회사와의 불리한 계약으로 인한 비싼 비료값 등 각종 영농 자재값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아침부터 내리던 비가 제3부의 농민 잔치를 할 즈음에 멈추어 농민들의 기쁨과 한을 풀기 위한 잔치 마당과 흥겨운 가락 속에 정겨운 막걸리 나눔, 노래, 춤, 줄다리기 등 모두 함께 어울리는 마당이 한껏 무르익었다. 이 잔치에 참여했던 900여 농민들은 내년을 기약하며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 전주 교도소 견진과 군산 교도소 영세

지난 25일(목) 오후 2시 전주 교도소의 수감자 39명은 박 정일 주교님으로부터 견진을 받았다. 이분들이 견진을 받기까지는 김 병엽(전동 주임) 신부님의 돌보심과 전동 교우들의 희생과 봉사가 함께 하였다. 전동 본당은 특별현금을 걸어 견진을 받는 수감자의 모든 수감자 400여명에게도 조그만 선물을 마련하였다.

한편 군산 교도소에서도 같은 날 15명이 영세를 받았다. 동료 100여명이 영세식에 함께 참석하여 새 출발하는 영세자들에게 힘찬 격려와 축복을 기원하였다. 그동안 군산 교도소 사목에 힘써 주신 이 상섭(문물동 보좌) 신부님과 사비오와 청년회원들, 문물동 교우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사비오형제는 고1때 눈이 멀어 학업을 중단한 청년으로서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매주 신부님을 도와 수감자들에게 기타를 치면서 성가를 가르쳐 주었다. 앞으로 교도소 사목의 활성화를 위해 교도소 후원회가 결실하게 요청됨을 이번 기회에 함께 생각해 보자.

□ 어린양(어린이 후보) 공소 보내기 성금

엄 소아과 권 세라피나씨께서 공소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양 대금으로 매월 1만원의 성금을 보내 주시기로 하였다. 편집부는 이 성금을 나환자를 위해 수고하시는 수녀님들이 계신 공소의 어린이들에게 보내기로 하였다. (동혜원 20부, 상지원 20부, 삼례본당 익산공소 30부) 또한 순창본당 쌍치공소에도 20부를 보내기로 했다. 늘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엄소아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세라피나씨께 깊이 감사드린다. 편집부는 앞으로도 계속 어린양을 위해 성금을 보내주실 분을 찾고 있다.

어린양 1년간 대금 : 10부(10,400원), 20부(20,800원), 30부(31,200원), 40부(41,600원), 50부(52,000원), 60부(62,400원), 70부(72,800원), 80부(83,200원), 90부(93,600), 100부(104,000원) 뜻이 있으신 분은 교구청 홍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042번

요심이 (486) 김병호



여사원 모집

자격 : 만 18세 이상.
 사본고, 무엇기 우대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이력서 1통
 기간 : 11월 연락처 : ㉠9340
 ※ 기숙사 완비
동양 섬유 공업사

독일제 치질약 에이널 좌약 입하 사마귀 제거약 베루말 재입하 시 민 약 국

4-0009·3-3338
 약사 김 병 의(마벨로)

고급 양복은 중 앙 양복점

교우분께 할인 봉사합니다
 중앙동 전주백화점 앞
 전화 ㉠ 4446
 안 종 기(베난시오)

정화조(수세식)

일반 변소 청소업
(주)전북기업사

전화 ㉠ 2740
 8773
 배 남 식(토마)
 육 태 수(토마)

금·은·보석·시계
 결혼예물을 하시는 교우
 에게는 혼배반지를 기념
 으로 기증함

보 석 장

군산경찰서 전북은행 앞
 전화 ㉠ 6603
 한 철 재(비오)

컴퓨터를 배우시다!

프로그래밍·키보드·과정
 대상 : 고졸이상의 남·녀
 개강 : 매월 10일

전주 컴퓨터 학원

문의전화 ㉠ 2805번
 전북은행본점뒤아리랑제과옆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12월 금요 성경 강좌 안내 : 강의내용-사도행전
- 7지구 교리교사회 : 12월 4일 오후 2시, 장소-함열분당
- 5지구 교리교사회 : 12월 5일 오후 2시, 장소-순창분당
- 그리스도 공동체 목사회(기초코스) : 1월 3일-6일, 장소-가톨릭 센터, 접수수 40명 한참가비-2만원 ※ 교육숙이나 M.B.W 추천회로 접수바랍니다
- 대건 한출 야학교(전동) 개교 2주년 기념식 및 학예발표회 : 일시-12월5일 오후4시, 장소-전동성당 강당
- 축! 영명일 : 30일-성 안드레아 박 종근·김 배운·박 성팔 신부님

(중앙)

주임 신부 문정희
수석 보좌 박기호
보좌 신부 박인호
사도 회장 김인협

전화 ⑥1711~3

치주전례 : 해설-황만금, 독서-①조성호 ②정운주
신자들의 기도-장기연

□ 지난주 봉헌금 : 408,110원

(서화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황인구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 주일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 다음주일 9시30분, 시간 엄수 바람
 3. 자모회 모임 : 12월 7일 오전 10시 성당 회의실
 4. 분당 정문 수리에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5. 병자방문 : 12월 3일, 병자 계신 가정 연락 바랍니다
 6. 공소판공 : 광곡리-8일, 마음리-10일 오후 3시
 7. 치주전례 : 독서-①김나섭 ②이정빈
- 지난주 봉헌금 : 216,771원 교무금 : 300,000원

(술정미)

전화 ⑦3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⑧9567 사도 회장 김수겸

1. 예비자 교리 : 공식미사 후, 수요일 오전 9시와 오후 7시30분
 2. 성령기도회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3. 요한회 월례회 : 28일 공식미사 후
 4. 가정방문 : 시간-오전 9시~오후 7시
29일-서신동 2구역, 30일-진북2동 1만·6만, 12월 1일-진북2동 2만·5만, 2일-진북2동 3만·4만, 3일-진북2동 7만·기타
 5. 성령세미나 : 12월 1일~5일 저녁 7시30분
 6. 견진성사 : 12월 12일 공식미사 중 견진교리 : 11월 28일~30일, 12월 6일~9일 견진참고 : 10일 오후 7시30분, 11일 오후 4시~6시
 7. 신년도 교무금 신입 : 가정방문동안 남부와 신입바람
 8. 금주전례 : 해설-이귀래, 독서-①박명길 ②임병호
기도-이철수·박병열
- 치주전례 : 해설-이귀래, 독서-①이종상 ②김창영
기도-이규철·이은자
- 지난주 봉헌금 : 593,450원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병엽
사부 ③3222 보좌 신부 박병준
수녀 ⑧3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글라라 형제회 : 오후 1시30분
 2. 성가정회 : 12월 1일 오후 2시
 3. 유아세례 : 다음주 8시30분 미사 후
 4. 가정방문 : 전동-30일~12월 1일, 서교동-2일, 중앙동-12월 3일
 5. 추계판공 : 18일-초·중·고·직장인, 20일-전동·서교동·동완산동, 21일 : 동교동·중앙동·서완산동·기타동, 22일-중남동·남노송동·경원동·다가동
 6. 젊은이 성가대 임원개편 : 단장-이승환(비오)
 7. 성령기도회 : 매주 수요일 7시 강당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종주,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식
공식미사 : 해설-이준영, 독서-①신일균 ②이영태
저녁미사 : 해설-경양수, 독서-①김동주 ②이승호
- 지난주 봉헌금 : 510,150원 교무금 : 751,000원

(파티마)

신부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수녀 ②4804 사도회장 황희상

1. 성모월례회 : 12월 3일<금>
 2. 성모기사회 : 12월 4일<토> 오후 2시
 3. 예비고사 학생들을 위한 미사 : 12월 1일(아침)
 4. 예산편성 : 제경분과위원 참석요 (오늘 저녁미사 후)
 5. 오늘이 대림 첫주일 : 불우이웃돕기 헌옷을 모읍시다
 6.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7. 공소 : 12월 1일-202, 815원 교무금 : 472,000원
- 지난주 봉헌금 : 202,815원

(노송동)

신부 ⑨0969 주임 신부 김용태
수·사 ②7032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 축! 박신부님 영명 : 축하식, 오늘 공식미사 후
 - 가을 판공일정 : 면접은 당일에 하세요
18일-오후 2시부터(초·중·고생과 직장인), 20일-남노송동, 유아동, 21일-중노1가동, 22일-중노2가동, 23일-인후동(본당 성사주는 시간-오전 9시~12시, 오후 2-5시, 밤 7시-9시까지)
 - 형제회 1일피정 : 29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 성탄절 "가족대할 성가 경연대회 개최" : 참석하세요
 - 개령회 임원 개편 : 회장-고여옥, 부회장-김명수·김철문, 총무-이정은, 서기-김계정
 - 특별헌금 : 손덕만씨(100만원), 최말필라씨-(5만원)
 - 차주의 전례담당
새벽미사 : 해설-은경순, 독서-①배인기 ②배금혁
공식미사 : 해설-박은경, 독서-①박기성 ②정순자
저녁미사 : 해설-이종관, 독서-①유철희 ②이 유
공식미사 : 기도담당-노인석·장육남
- 지난주 봉헌금 : 본당-359,555원, 아파트-45,000원
교무금 : 본당-338,700원 아파트-35000원

(덕진)

전화 ②2182번 주임 신부 김봉희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양상열

1. 진복회·부녀회 월례회의
 2. 오늘부터 새해입니다 : 기도서 C해 읽으시다
 3. 금주 가정방문 : 팔복동 전지역
 4. 사도회 삼일위원회 : 다음주 공소회장님 꼭 참석바람
 5. 중·고등학생 미사 : 일요일 오전 8시30분
국민학생 미사 : 일요일 2시
 6. 1세대 1인 예비자 인도 : 봉헌서약서 봉헌 바랍니다
 7. 젊은이들 모임 : 관심과 협조를...
- 지난주 봉헌금 : 537,25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로

1. 오늘은 대림 제 1주일 : 1년이 시작되는 해 C해
2. 사도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첫 절례 6 : 12월 3일 저녁 7시
4. 첫 절례 7 : 12월 4일 저녁 7시
5. 영화상영(미사해설) : 12월 12일(주일) 저녁미사 후
6. 성 안드레아 사도축일 : 30일, 성 프란치스코사 베리오 대축일 : 12월 3일, 위 본명이신분 미사 참석바람
7. 금주전례 : 해설-최정순, 독서-①이갑진 ②김인식
신자들의 기도-유덕열